2021.6.20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미완성된 율법, 온전하신 그리스도

신명기30:9-10, 히브리서10:11-14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다가 영원토록 천국소망 가지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마귀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RUTC의 응답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문제의 답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최고의 천재였던 교부 오리겐이라는 분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하였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많은 율법의 내용을 13장의 내용으로 결론 낸 말씀이다. 2세기까지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었다. 히브리인이란 유대인을 의미한다.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었던 것이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아직 체질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들은 미완성된 그림자임을 알려주고, 복음과 구원과 구약의 모든 제도들의 진정한 실체이시고 주인이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단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에 대한 변증서이다. 인간들은 유대인들처럼 불완전한 율법만 지켜도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백년, 천년, 영원한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1. 첫 번째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사고방식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유대인들은 인간이 천사보다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천사가 보호하는 개인과 가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인생이 다르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신 존재하고 말씀하고 있다.

(2)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리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다. 할례와 믿음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다.

(3)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TCK, NCK에게 복음을 전하는 RU인 것이다.

(4)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보겠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그들은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양과 염소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보고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본질이 모르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종교적인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5)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잘못된 대표적인 생각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영적상태와 사고방식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

니라'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다. 안식일을 율법적, 종교적으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지켰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2장 29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 안식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주실 평강의 왕이시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증거하도록 하겠다.

(1)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모세는 단지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주인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모세는 단지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왜 창조주이신가. 여호와의 뜻은 '손바닥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는 뜻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를 의미하신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사탄과 죄를 이기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2)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전도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13장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작은 것에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며 반성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1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다. 복음 받은 우리는 친절해야 한다. 13장 15절에서 17절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이다. 순종하고 따르는 조직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직복음이 될 때 전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복음으로 거듭난 만큼 내 주변에는 로마서 16장의 삼위밋의 절대제자들을 붙여 주실 것이고 가정도, 교회도, 전도운동도 지속할 수 있다.

(3)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족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승천하셨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동정해주신다. 그러나 인간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구원해주실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겠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당시에 멜기세덱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5)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며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영적인 상태는 완전복음이 체질화된 상태이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12가지 문제가 우리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절대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τέλειος)'이며, 영어로는 '완성한(complete)', '완전한(perfect)'이다. 우리들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러한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겠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도전하지도 않다가 실패했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

결론으로,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CVDIP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불완전했던 모든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신다는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시면 구원부터 완전복음까지 이루질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이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기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100년,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루에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조금만 가져도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서밋타임이란 내가 정말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을 위한 집중의 시간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나의 율법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사고방식, 나의 안 되는 모습을 적어보시고 정말로 내 자신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실 나의 모습을 적어보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사랑RUTC와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응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체질이 변화되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